昭和八年六月三日 【土曜日】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日刊) (第三種郵便物認可) 第四千三百六號 【一】

夕刊
朝鮮日報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京城府堅志洞一一九五 朝鮮日報社

何、全將領會集하고 停戰成立을報告
緩衝地帶中軍撤退開始
北平政務委員會近日成立

【北平一日發電通】何應欽은一日朝十時부터居仁堂에萬福麟 宋哲元以下全將領을召集하야會議를開催하고口頭으로부터停戰交涉成立의經過及結果를報告한後決議한結果日本軍에게占據된長城線以南의地區를日本軍으로부터回收할接收委員會의設置를決定하고同時에北平政務整理委員會와河北省政府와協同하야戰地特別警察을設置키로決定하엿다

【天津一日發電通】中國側消息에依하면緩衝地帶의中軍은二日부터漸次撤退를開始하고以西萬福麟兩軍의一部는共匪討伐軍에編入되여近日南下할모양이다

【北平一日發電通】停戰交涉의一段落으로黃郛는北平政務委員會를速히成立식히기爲하야一週間以內로委員全部를召集하고會式을擧行하기로되엿다는旨를黃郛代辯者로부터發表되엿다

停協定正文戰 新京으로携行

【天津一日發電通】停戰協定正文은○○○○이昨日午後七時塘沽發○○으로旅順經由新京에携行하엿다

回上京을機會로하야 齋藤首相을爲始하야 永井拓相、後藤農相等과會見하야 來年度부터實施하고십다는旨를力說하야 諒解를求하얏는데 이에對하야는 政府로서도 大體異論이업슴으로 今月下旬의總督歸任期外지에는政府의 根本方針의決定을볼터이다 그리고總督으로서는 이實施에對하야는 政府로하야금直接行하게할는지 或은民間會社의게委任할는지 近近新設될滿洲農地開拓會社를 活用할는지 달리官民合同會社를新設할는지 政府、軍部兩係側意向을充分參酌하야 具體的計劃의立案에着手할意向이다

中國側과折衝할 外務省의主要見解

【聯合東京一日發】停戰交涉成立後의日中關係에對하야日本外務省은다음과갓흔見解를가지고이方針으로서今後北中實力者及南京政府와折衝할모양이다

一、中國側에서今後滿洲國의治安을害하는態度를取치안코또北中及滿洲에서日本의利益을侵害치안는데限하야는日本은絕對的靜觀의方針을堅持하는것이다

一、中國側은今後如何한形式에서도排日排貨運動을行치안키를要함

一、南京政府는從來와갓치國民黨名義로行하는排日運動을絕對로取締할것

一、今番의停戰交涉에서締結한中國軍의停止線을넘어서中國軍이進出하게되면日本은即時斷乎한手段을取할것이다

政治關係基礎案

【天津一日發電通】中山書記官과黃郛가近日北平에서正式交涉을行할政治關係基礎案은左와如하다

一、北寧鐵路의聯絡問題並交通에關한件

一、中國側의滿洲國에對한挑戰撹亂中止의件

一、中間地區特別警察隊設置에關한件

對中政策을轉向?
日中停戰交涉成立됨을契機로 外務當局서立案中

【東京二日發電通】停戰交涉成立을機會로日中間은往年의親善關係에回復할것이라고期待한外務當局은中國責任者의誠意잇는措置를付望하고잇는데同時에內田外相은 이때에對中政策을轉向하고積極的親善政策實行에나갈必要를是認하며重光次官을中心으로亞細亞局部로하야금新對中政策의立案講究를命하고잇다 近近帰滿하면上海에잇는有吉公使에게重要關係를促하야그北上을催促하고新政策實行에들어갈것이라고期待하게되엿다 新政策의立案에對하야當局의特히强調하고잇는것은如左하다

一、滿洲事變以來日本軍과中國軍隊間에戰鬪行爲잇섯스나日中兩國內地居住의兩國民은何等騷擾를이르키지안엇다 日中間의情勢는무엇보다도此民族親善에立脚치안으면안된다

一、兩國關係의調整에는形式을떠나서實質的効果를收함을原則으로함

一、滿洲國에對하야는中國官民의事實上承認을從適하고將來東洋의紛議는日滿中三國協力하야圓滿히解決할方式을今日實質的으로建設할것을希望함

宇垣總督力說의 朝鮮人集團移民 政府도大體贊成

【聯合東京一日發】宇垣總督

世界經濟會議 十餘日內로臨迫

世界經濟會議를十餘日밧게남겨노치못한華盛頓準備會商은米對各國會商은最後의會商인루-스氏 不非全權과의會談도終了되엿고米國을비롯하야各國의全權人選도大槪決定되여 本舞台의準備도整頓되엿는模樣이나這間米國全權이爲替安定과關稅協定에대外지希望한다는것을表明하고잇는一面으로佛蘭西가英國의態度에對하야 不滿을表하고잇는事實은同會의前途에對한一對照로注目된다

關稅休日案決定코 六個委員會組織乎

【倫敦三十日發電】世界經濟會議의開催도드디여十日後로臨迫하엿는데 同會議에잇서從來의軍縮會議其他의會議의例에從하야 몬저各代表의演說로一般討議方法으로부터始作하야各委員을任命하야一般討議를基礎로한協定議案을作成케하는方法을取할것이냐又는會議開會後直時委員會任命의方法을取할것이냐에對하야目下硏究를進行하고잇다兩者의方法에 對하야는米國側이軍縮會議等의形勢에鑑하야매우迂遠하다고反對하는關係로結局會議劈頭에 米國側으로부터提案될豫定인關稅休日案에關하야 各國代表의審議를求하고會議決定後特別委員會任命으로移하야 經濟會議準備委員會作成案에依하야 左記六議題에關한委員會가任命되여會議는大體로秘密會議로進行되리라고觀測되다

一、金融及信用政策問題
二、物價問題
三、資本移動恢復問題
四、國際貿易上의諸制度에關한問題
五、關稅及通商條約政策問題
六、生產及通商統制問題

佛經濟侵略者라고 對英反感表示
會議前途에一抹暗影

【巴里發電】世界經濟會議를二週日앞둔巴里諸新聞의經濟的對英反感은露骨的으로發現되고잇다此는經濟會議에잇서佛國代表의態度를 多少程度까지豫示하는것이라고解釋됨으로經濟會議의前途에暗影을投하는것이라고하야注目되여잇다그主要한論點은

英國은佛蘭西에對하야最大의經濟的侵略者로看做하고 世界經濟平和를高唱하고잇스나 實質에잇서는「아제친」丁抹獨逸等國과 新通商條約을 締結하야가지고 自己의對佛地位를有利케하고 務安價를利用하야 地盤奪取를企圖하는同時에 더욱波斯日本 蘭 瑞典 愛蘭等國과도個別的으로條約改訂의機運을지어通商折衝을取하고잇으나 佛蘭西가從來여는通商條約改訂折衝을經濟會議開催에鑑하야 一時中止하고잇슴에도不拘하고 英國은依然同一한手段을進行하고잇는것은會議開催國인 英國으로는二重人格의行動으로會議의空氣를 스사로混亂케하는것이다

滿洲國에서 旅券檢查開始

【安東一日發電通】滿洲國不承認國外國人의入滿者旅券檢查는六月一日부터實施되엿다第一回의列車에서初檢査를當한外國人은英國人五名으로全部日本에오래살고잇는사람이며가는곳은哈爾賓이다更히第二回의列車에서도英國人夫妻가타고잇스며行方은奉天附屬地라고말하고잇는데別로怪異로운點도업슴으로無事히通過를許可하얏는데滿警官에依한入滿旅券檢査가처음임으로外國人은全部가驚嘆하고잇다

루즈벨트大統領 戰債蕩減은反對
로民主黨總務의言明

【聯合華盛頓一日發】來六月十五日支拂期限이되는戰債에對한「루」大統領의態度는注目되엿잇섯는데 上院民主黨總務「로빈손」氏는一日左와如히言明하얏다

大統領은戰債에關하야는議會에서決定안된 政策을實行中으로戰債蕩減에는反對이다

八面鋒

◇「英領各地의關稅引上을 英政府가防止할것을保證하라」는것은、日本業者側의要求。

◇「英領各地에서 日本品을驅逐하라」함은、英國業者側의要求

◇이러구서도、兩國協議會를보다하니、그結果는不問可知。

◇小學生의 運動會前演習으로 본다면 재롱스럽지만、倫敦會議의示威는어리면쌀不見。

◇暑節이일흔 아이머리事件、半朔이지난後、「멍구이」는가사 허수應。

◇「멍구이」는사람의別名、「멍구이」의別名은 杜鵑새、惜鳥 한風見의異稱이 杜鵑새되니 우짓는듯。

若槻總裁靜養

【東京二日發電通】若槻民政黨總裁는二日午前八時十八分新橋發列車로伊東別莊에赴하야 二週間靜養할豫定이다

三土鐵相 望月氏自重勸說

【東京二日發電通】政友會顧問望月圭介氏는廣島市의市議院으로부터一日午後四時五十分歸京한바三土鐵相은氏를原宿私邸로訪問하고政友會가長老會議及幹部會에서現內閣과絕緣을決定한眞相을報告하고自重을勸說하엿다더욱望月氏는二日午前鈴木總裁를訪問하고對政府關係에對하야는어대까지國家本位의立場에依하야政局을打破하고此에依하야黨內部의統制를圖하는同時에政黨政治의常道로歸復케하는것이賢明하다는旨를進言하야總裁의考慮를促할模樣이다

나치스政府勞働相 强制勞働制發表
勞役兵役未完前은結婚을禁斷
褐色彈壓은依然續行

【伯林發電】나치스는最近勞働組合을襲擊하고 同組合幹部五十名을筆頭로多數의勞働組合員을逮捕하는同時에 同組合에서發行하는機關紙外지押收하엿다 그리고國粹社會黨만이眞正한 勞働者의利益을代表하는政黨이라고自稱하고 勞働組合은 赤色犯罪者 의徒黨이라고烙印을찍엇다 今後組織될新國粹勞働組合의指導者「레이」博士는 나치쓰行動委員會로부터二名을選拔하야 手工業勞働組合과敎育勞働組合의指導者로任命하는即時로 「히틀러」가메이데이에發表한勞働徵勞計劃을實現하고잇다 獨逸勞働相「히-르」大佐는同計劃에左記와如한大要를發表하엿다

一、一九三四年부터 二十歲의靑年을募集하야 二個部隊를編成한다毎部隊의人員은三十五萬名으로하되 服務期間은六個月로함

一、二十歲를超過한者는十二個月間服務함

一、右指導者의選擇에잇서는特別注意를加하야 指導者는 반드시 軍人과勞働者의性格을具備한靑年으로함

一、應募者는 몬저勞働服務를畢한後 軍事服務制가制定됨에따라 軍事訓練을受할것

一、獨逸靑年은 勞働服務와軍事服務를完了하기前에는結婚함을不得함

나치스政府 獨裁下의 大官의變動도甚하야 歐洲大戰當時毒瓦斯硏究所長으로잇는 「노벨」受賞者「프리츠하벨」敎授도 辭職을當하엿다 退職當한 나는敎授나 講師를싸가지고「하벨」敎授도 非아리안族이다 「나치스」新聞은非아리안을 猶太라고 定義하엿다) 大學生들은나치스의熱情이薄弱한敎授에對하야反抗運動을煽動하거나煽動해도無妨하다고하엿다

松岡洋右氏 鈴木總裁와懇談

【東京二日發電通】松岡洋右氏는一日午後八時鈴木政友會總裁를私邸로訪問하고政局問題를 비롯하야內治 外交各般에亘하야時局問題에對하야一時間半懇談을交하엿다

愛蘭赤化를爲하야 콤인테른活動猛烈
『데발레라』政權의顚覆과 싸베트의建設指令

【[illegible]發電】最近의消息에依하면莫斯科의第三國際共產黨執行委員會에서는愛蘭赤化에對하야計劃을着着進行中임으로새로운獨立愛蘭共產黨을組織할것을決議하얏는데 이新組織은 在來의愛蘭革命勞働者團의組織을變更하야이에貧農工場勞働者失業者의大部分을編入식힐것이며 創立大會는五月二十七日愛蘭某地에서 開催되여同大會는第三인터내슈낼支部로서의加入과莫斯科의指令에對한 無條件服從을決議할것이豫定되여잇고 또愛蘭共產黨의行動綱領으로는 압흐로서는 데발레라政權의正體暴露에依한人民과의隔離 反宗敎宣傳 反英쏘비에트 革命的暴動에依하야民族民主主義政府를顚覆하고 愛蘭쏘비에트共和國을建設할것을包含하고잇다

墺、나치스彈壓으로 獨、國境閉鎖實施
게르만쌀락破壞?

【伯林發電】墺太利의「돌푸스」政府는最近同國의나치스運動을壓迫하고獨逸側의反感을사고잇는데 獨逸政府는旣報한바와가리드되어 그報復手段으로 六月一日로부터 獨逸에서墺太利에入國할者에게는 特別한許可證을要하기로하고 그手數料로서一千馬克을支拂하기로決하고 事實上에잇서서獨逸墺太利國境을遮斷하는非常手段에나간것이다

이問題에對한獨逸側의態度는 頗히强硬하고 現在從來恒常政府의施政을支持하야 政府의準機關紙라고 觀測되고잇는「도이체아루게마이네」紙가 五月二十九日夕刊에「骨肉의爭」이라는題目下에論說을揭載하고兩國親交의歷史를開陳하야最近의兩國關係가遺憾이라고하고 이問題가速히圓滿한解決을遂行하면再次昔日의友好關係로回復하겟슴으로 右論說은公共의安寧秩序를害한다는理由로發賣를禁止당하는形便이다

墺太利에서도 獨逸의今回의處置에는非常히憤慨하야 이處置는墺太利經濟에對한不法의攻擊이며 참지못할內政干涉이라하야官吏軍人等에게는 獨逸의라듸오를聽取치말나는嚴命을내리고또近近行하게될獨逸國際의維也那訪問에對하야도歡迎치안는다 三十日右의問題에關한態度를決定하기爲하야 閣議를 開催할모양인데 이結果如何에依하야는容易치못한 事態에 싸지리라고보인다 獨墺兩政府는從來中部歐洲의 「푸롬」이되여 佛蘭西其他 諸國으로부터 隱然히恐怖의對象이 되여오든바로兩國의確執이 更히惡化하는境遇에는도리혀 獨逸自體의國際的威信을떠러트리는 結果가되지는안흘가하야 그展開如何가異常히注目된다

白鳥瑞典公使 아그레만到着

【東京一日發電通】전거부터瑞典政府에要求中에잇는白鳥情報部長의瑞典駐在公使에對한아그레망은一日午後一時外務省에到着하엿는데 政府는二日定例閣議에附議任命裁令할모양이다

外務省情報部長 白鳥敏夫 任特命全權公使(瑞典駐在)
大使館參事官 天羽英二 任外務省情報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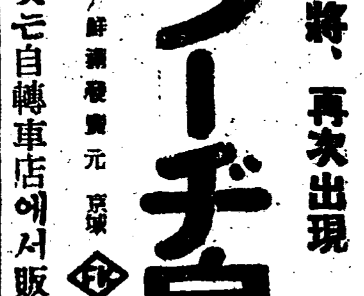
建築工事設計監督
朴吉龍建築事務所
京城府寬勳洞一九七八 電話光化門一五六四番

朝鮮舊式婚具用品具備
營業種目
婚用需品、屛風衾具
鍮器各種、漆器木器
朝鮮樂器、都散賣
京城鍾路二丁目五十三番地
電話光化門二五二番
振替京城九七八番
工場市外上往十里三四九番
德泉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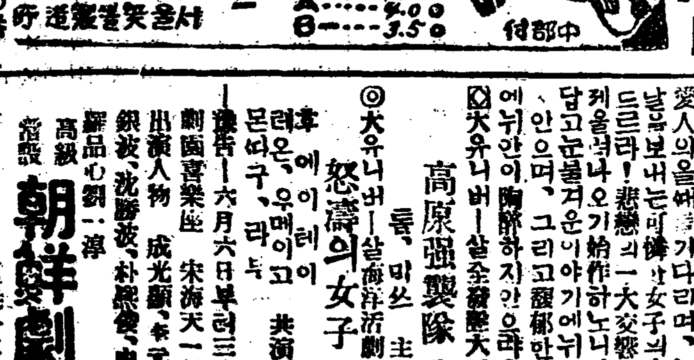
有利 京城府明治町二ノ八二 電本三〇七六 鮮滿興業商會

六〇六號 한대에一圓
往診無料 藥價實費
京城府清進洞二一〇 全治輕費診療所 電光八九八番

洪蘭坡氏의最近名作
朝鮮童謠百曲集 下篇出來
여러분의 苦待하시던 百曲集下編五十曲이나왓습니다 幼稚園에서부를童謠가만히실닌것도特色이려니와 全編이모다上編以上의자미잇고아름다운노래뿐입니다
定價金八十錢‧送料四錢
朝鮮歌謠作曲集 壹輯出來
朝鮮의歌人鷺山의 時調十五編에아름다운樂曲을부친것인대 樂想이自由롭고奔放한點에잇서서 童謠曲의類가안이니다 時調의樂曲化!敎壇에樂壇에레코-드』에……樂界의一大收穫입니다
定價金五十錢‧送料貳錢
發賣元 京城府貞洞一番地 硏樂會
分賣所 京城 第一書店‧永昌書館‧博文書館 漢城圖書會社‧以文堂書店 其他全鮮各地大書店에도잇슴

輪界의驍將、再次出現

ラーヂ自轉車
鮮滿發賣元 京城 ツヅキ商會本店
各地信用잇는自轉車店에서販賣함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話光一一五九

公認서울아이一式 學校用

振京五〇四〇番

セフランス醫專病院眼鏡部
檢眼無料
京城驛前

皮膚科花柳病科
醫學博士 吳元錫
京城安國洞네거리 電車停留場前
電話光二一二三

二秒間 全八卷
主演에드와드G로빈손氏
二秒間! 二秒間! 人間一生

처녀의巴里 全五卷

處女發展雙紙 全六卷
M‧G‧M特作大映畫

優美館

눈물에지는꼿 (悲劇)全十卷
大유니버-살社特別映畫
高原强襲隊 全六卷
怒濤의女子 全五卷
豫告 六月六日부터三日間
劇團喜樂座 宋海天一行公演
高級 朝鮮劇場 電光一二八一番

六月三日土曜大公開
(晝夜二回興行)
F‧N、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決鬪장사 全七卷
大喜活劇
파라마운트社特作品
入場料 階上十五錢均一 階下十錢均一
毎日二回 밤大一時 낮二時

大活劇 男裝女劍客 全七卷
파라마운트社特作品
悲劇 사라나그아들 全七卷
第一劇場演藝部
常設映畫 第一劇場 電光一七五

불론드、비너스 全十卷
러취、라운 全十卷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明年度부터 朝鮮에 稅制改定

全般的이 안되면 一部라도 斷行

稅率은 勿論昂騰한다

조선의 세금에 대한 제도개혁에 대하여서는 수삼년전부터 총독부당국에서 계획을세우고 모든 조사준비를 하여왓다 종래의세금제도 권초조사도한지가 오랫고 그동안 경제사정도대단히 변천하야 종래의제도에는 세금의 부담이 불공평하게된것이 만타는것과 한편으로는 빈약한총독부재원(財源)을 보충하겟다는의 한증세(增稅)로써 세제개정에 의사도잇서 불원한장래에실시할계획을진행중에잇섯다 그러나세제개정의 곳증세가된다는 일반의 괴분도 만코한편으로는 중앙의 고교장상(高橋藏相)이 증세반대를 주창하여온관계상 총독부당국으로서도 다소고려를 하여왓섯는데 최근에와서 고교장상은 일반재원으로 증세의필요를 늣긴다는 태도를 취하게되어총독부로서도 종전적극적으로 세제개정의 계획을진행식힐 복안을 가지고방금동경에가잇는 총독도 예산편성방침과가티 세제개정에 대하여도 상의가 잇슬터이다 이에딸아 어느한도내에서든지 명년도부터라도 부분적이될런지는몰으나 세제개정을 보게될모양이다 이에대하야 총독부림재무국장(林財務局長)은 아래와가티말한다

총독부로서는 세제개정에 대하야 삼년전부터 충분히 긔초조사를하여왓다 그러나 중앙의태도에 대부분이 숭동하게됨으로 지금엇더케 개정의편지말할수는업다 즉 총독부로서는 세제개정에대한 정도와 방법시긔를엿보고만잇는데게인소득세(個人所得稅)와영업세(營業稅)중 어느것을 주체로 할것인가도 생각중이다 그러고 세제개정의결과는 부담이권반적으로 다소 증가를 목편지몰으나 목표는 부담의 공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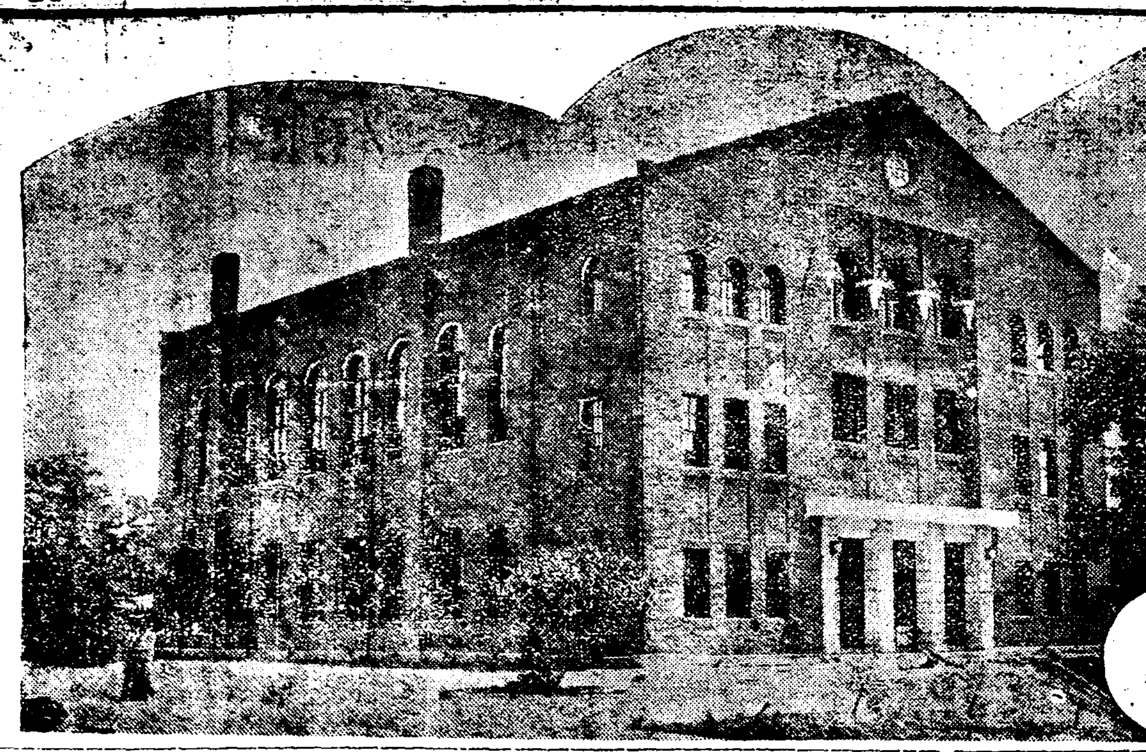
라고말하나결국은증세가될것은 사실이고 한편으로 부담의공평케될것도 사실이다 또개정의목표는 당연히소득을 표준하야 유산계급에 중더중하게 될것은불론일것이고 세제개정에딸아 세무긔관도 독립을보게 될터이라 한다

郵便料도引上考慮

朝鮮서만百萬圓이增收

豫算編成難으로當局이企劃

라년도 예산편성에곤난한 총독부는 증세와공채로 세입흥족을보충하는수밧게업서 우편료 엽서 연초갑을 올릴것이라고 권하나 통신료금을 올리는데는체상(遞相)자신이반대하는의향을 가지고잇고 연초갑을올리는것은 대중의 생활품의협하는것으로 맹렬한 반대가예상됨으로 실현은 불가능하리라고 뵈이나 일반물가의 등귀에 비하야 대단히커렴한통신료금을 올린는하면으로보면 가능성이업다고도 할수업서 여러가지곡절을 거듭한결과 만일실현하면 조선서도당연히 올리게될터이며 이결과약백만원내외가 증수될터임으로 재원이 고갈한이때법정지가(法定地價)와한께 큰재원이될터이라 한다 연초는상급품으로부터 하급품으로 경제비상시의 자극을 바더 민중의기호(嗜好)는 점차로 저하하는경향이잇는이때 그갑을 올리는것은 절대로불가능할터임으로 전매국에서도 목하 권연문제로하지안는다



◇培材高普落成된新講堂◇

時間問題로 八十名罷業

釜山兩處工場에서

【釜山】 부산부대신정(釜山府大新町) 팔십륙번지 창교건구공장(倉橋建具工場)과 동영정(榮町)이정목 이십삼번지 대삼건구공장(大森建具工場)에서는 지난일일부터 직공의 출근시간을 종래 오전일곱시반에서 삼십분일즉이게 오전일곱시로 변경할것을 고주측에서 발표하엿슴으로 이에직공들은 총역속하야반대하얏스나 고주측에서는 완강히듯지안이함으로 드듸여 창교공장(倉橋工場)에 사십명 대삼공장(大森工場)에 이십삼명 합계팔십명이 출근치안코 파업중인데 이에대하야 부산서고등계에서는 만일을념려하야 방금 경계중이라한다

培材高普新講堂 超尖端建物落成

移動天井과音響反應防止裝置

朝鮮唯一의內部機構

시내 정동(貞洞) 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普)에서는 대강당(大講堂)을 새로건축하고 그락성식을 동교창립긔념일인 오는팔일에 동교에서 거행한다는바 동교에는 원래 근오십년간이나 서양부인들을 사러드리든 구강당이 잇섯스나 오늘에와서는 력사적으로귀한것이나 실용에는 맛지안음으로 작년가을부터 예산삼만원으로 신강당건축을 시작하야 근일에야 준공된것으로립평(立坪)사백평 이층강당에만 천오백명을 수용할수잇는 건물인데 조선에서 이런종류의건물로는 그긔구(機構)와 내부구조가 제일이라는바 특히벽에는『펄ㅡ랩』을 천정에는 『세루텍스』를사용하야 음향(音響)의반향(反響)을막는데 완전히 성공하엿스며 또한무대(舞臺)는 넓이사십륙척으로 약이백명이 동장할수잇고『호리존드』를써서『자연의배경』을 그대로 나타낼수잇는것이며 이동천정(移動天井)이며 무대가운데잇는우물이며 그어느부분을물론하고머리를쓰지안은 첨이업는완전히 성공한데 오는팔일에동강당의락성식을거행하리라는데 이에대하야 동교교무부주임신봉조(辛鳳祚)씨는 다음과가치말한다

『이번강당건축에 성공한것은 우리학교 관계자전부의 로력에 잇습니다 강당의구조며부장치설치에는 어느것이나 모다 여러가지를종합하여최신고안입니다 그리고음의 반향을막는데는거이긔최적으로성공하얏습니다 특히 이번건축청부자인(請負者)인건양사(建陽社)에서 사천여원을손해보아가며 공사를준공해준데대하야 무어라고 말햇으면조흘지 모르겟습니다』

永興農組被告 三十名控訴

三十日京城覆審에

【咸興】 긔보=지난이십구일 영흥농조사건(永興農組)과고채수철(蔡洙轍)외 칠십삼명중 지난삼십일부로 채수철외 이십구명은 경성복심법원에 불복공소하고 남어지사십삼명은 함흥형무소에서 복역하기로 되엿다는데 공소한피고들의 성명은아래와갓다

蔡洙轍 黃正煥 李炳址 朱月根 金德濬 金增斗 金佶珩 陳章郁 黃泰律 韓泳徵 朱禹洪九 辛渭相 黃陽甲 孔炯沂洙 黃比俊 吳昌律 孔炯達 朱孝國 金有鍊 李潤鍾 金孔柱鎬 尹斗憲 朱乙鳳 金致榮 金敬成 車致輪 金景煥 金琉經 金東翼 金允經

京畿道에서 綠肥品評會

경기도농회(京畿道農會)에서는 작년부터 도비(道費)의 보조를 어더가지고 논의이모작(二毛作)으로서 종래부터 장려해오던록비(綠肥)(헤아리벳취)의품평회를개최하야 자급비료의 증산을 장려해 오던터인데 금년에도도내의 각군으로부터 칠십여점의 출품신청이 잇어서 농회에서는 도와밋도 농사시험장의 응원을 어더가지고 오는륙일부터 일제히 각군에심사원을 출장시켜서심사를 개시할 계획인데작년에는 안성군(安城郡)의 일단보입권칠백 팔십관이 최고기록이엿다고한다

善山龜尾間 新遞送線路

경북선산(善山)에 발착(發着)하는 우편물은 금천(金泉)서자동차로 나르고 잇섯스나선산과경북본선 구미(龜尾)사이는 상업상밀접한 관계가잇는 까닭에체신국에서는 선산,구미간우편물자동차체송선로(遞送線路)를새로개설하야 오는륙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엿다 한다

自轉車密賣喫

【仁川】 시내도산정(桃山町)에사는김항진(金恒眞)(二六)시내 본정(本町)도변(渡邊)자전거부의 직공으로 그주인이 시내빈정(濱町)환성(丸星)운송점에빌려준자전차를 비밀이 차저다가경인선소사(素砂)우편소집배인김수희(金壽喜)에게시가사십오원가치되는것을 오원오십전에 팔아먹엇는데 그후멧칠이 지나지못한지난 삼십일일 오후세시경에 김수희가 그자전거를 타고시내 사정(寺町)부근을 질주하든중 마침 자전거부주인집 고용인에게발견 되엇는데 그사실을들은인천서에서는 곳김항진을 체포하야 방금취조중이라한다

國民府梁瑞鳳一派 瀋海線爆破企圖

警備員을增加嚴戒中

【奉天二日發】 최근폭탄사건이 자조생김으로인하야 당국에서는 화약류의 탐사취체를 엄밀히하면서잇는바모긔관의탐지한바에의하면 일만토벌군(日滿討伐軍)의토벌에 반만군수령 양서봉(反滿軍首領梁瑞鳳) 조선인 일파가 은닉(隱匿)하엿든 강렬한폭탄이십여개를 가지고 무순(撫順)에들어와 심해철도(瀋海鐵道)폭파를긔도(企圖)한 사실이잇서 목하연선에 경비병을증치(增置)하고 엄밀히 경계하는중이라고한다

京都帝大法學部 事實上閉鎖準備

勅令案樞府上程을奏請할것

目下草案作成에着手

【東京二日發電通】 경도제대동천교수(京都帝大瀧川敎授)문제에관련하여 법학부 교수들은 아직강경한 태도를가지고 잇서 법학부가 페쇄될런지도 모르는상태임으로 정부에서는 법학부가 페쇄되는경우를고려하고 대책을강구중인바 페쇄되면 교수들은 업서질터임으로 문제가업스나 법학부학생을 엇더케처치할지가문제이며학생을다른관사립대학에난우어보낼측령(勅令)을새로공포하는수밧게업고이측령은 추부주청(樞府奏請)의 수속을 취하지안으면 안됨으로목하그초안작성에 착수하고잇다

日本朝鮮間의 電話成績良好

순일본산해저(海底)신(新)케블을사용한 일본조선 련락전화는 일일부터부산(釜山)구주(九州)간삼회선(三回線)에의하야개통되엇는데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엄원(嚴原)과신통화구역인 북구주(北九州)의주요도시(主要都市)와의 통화가도합스물세번 서른두통화라는 호성적을보이고잇다

濟州秘社 言渡는五日

【大邱】 제주도 비사(濟州秘社)사건의 신재홍(申才弘)이하 이십사명의공소공판은 지난오월중순 이래여러날 계속하야대구복심법원에서개정중이든바심문을마치고서 오는오일 오전아홉시부터 동법정에서 판결언도를하겟다고하며 검사의 구형은신재홍(申才弘)칠년 김한정(金漢貞)오태진(吳太進)리등이(李登衛)등의 륙년이하전부가원심과갓다고한다

延專主催 本社後援

中等校武道大會

三日午後一時半에開催

市外延禧專門學校에서는 本社後援으로 오는三日第四回全朝鮮武道大會를 同校道場에서開催하는바 選手諸君의多數參加를바란다고한다 (雨天順延)

同校道程은다음과갓다

一● 汽車便(新村驛下車自同驛至同校一基米車賃片道十錢)

來 京城驛發午後一時二十八分
同 午後四時四十三分

往 新村驛發午後三時二十一分
同 午後五時二十一分
同 午後七時二十九分

二● 汽動車便(延禧驛下車自同驛至同校一基米 車賃片道十錢)

來 京城驛發午後一時五分
同 午後四時二十九分

往 新村驛發午後三時五十一分
同 午後五時四十三分

三● 電車便(新村停留場下車至同校三基米)

四● 徒步便(自西大門郵便局至同校三基米半)

씨름大會成績

六月一日青年會館에서

원씨름

[illegible]

바른씨름

[illegible]

代表의撤回를 學生等電報催促

學生의抗爭은더욱擴大

【東京二日發電通】 동경제대적문(東京帝大赤門)압포대옥려관(布袋屋旅館)에 자리를 잡고 운동하고잇는 경도제대(京都帝大) 경제학부 대표다섯명에 대하여 이일 산본(山本)경제학부장은 아부(阿部)학생부장의 일홍으로 학교에도라오기를 촉진하엿으나 대표는즉시로거절하는 전보를치는 동시에경도제대의학생본부로 항의하기를 의뢰하여 이로경제학부학생의 한경도확대할 형세에이르럿다

調停次로 文相과三部長懇談

學生妄動을云云

【東京一日發電通】 경대사건(京大事件)에대하야 조처할방침을 의론코저 동경에온 경대본야공학(本野工學)우전문학(羽田文學)월전의학(月田醫學)의 삼부장은 오전열한시 관저에서 구산문상(鳩山文相)과 회견하야 학생사상상에 그영향이 크다는것을말하고 문부성측(文部省側)의 태도완화와 및조정하한 선후조처(善後措置)를취하여달라고 간망하엿는바 여기대하야 문상(文相)은 이즈음에사표(辭表)를 철회하고 학생의망동을 경계하는것이조타고간담하엿다

瀧川教授問題로 平壤서도同窓會

決議와激勵文發送

【平壤】 경도제대(京大)법학부 동천교수(瀧川敎授)문제의분규는 드듸여평양에까지 파급되엿다 재평경대동창회(在平京大同窓會)발긔로 삼십일일오후일곱시부터 부내서기통(瑞氣通)씨집에서 열렷든 동창회석상에서 전후륙시간의 격론한결과 동천교수의 형법독본(刑法讀本)과 형법강의(刑法講義)는 조금도 적색사상(赤色思想)으로처벌하는바업는 신념과대학의독립자치를위하여 어대까지나 교수회의성명서(聲明書)를지지할것을 결의하고즉시소서(小西)총장, 법학부교수를비롯하여 경도(京都)대판(大阪)에잇는 유신회(有信會)에격려전보를치는일방부산(釜山)경성(京城),대구(大邱)각동창회에서도 분발하라는 격려전보를하기로하여 삼십일에 각기발송하얏다고한다

◇聲明書◇

吾等은京都帝國大學瀧川敎授問題에關하여愼重檢討한結果大學法學部全敎授團의聲明이極히正當한것을確信한다因하여光輝잇는母校의名譽와傳統維持를爲하여全力을擧하여同敎授團의行動을支持聲明하고目的의貫徹을期코저한다

右聲明한다

西鮮京大學友會有志

大邱에서도 京大校友會

【大邱】 경대동천교수(京大瀧川敎授)의문제가 단순한경대와문부당국간에만 한하지 안는만큼그의 여파는 대구에까지밋치게되여 경대동학부 제삼회졸업생 무미정장(武尾頴藏)변호사가 발기인으로 이일대구지방법원회의실에서 동교출신 재구유지자(在邱有志者)급요사이귀구중인 동학부학생과 동문제에대한협의를하겟다고한다

鐵道從業員의 腕章標識等變更

오는십일일부터시행

철도국원(鐵道局員)의 표지(標識)가륙월십일일부터 종변경된다 지금까지업든 금장(襟章)을고원(雇員)이 상급에게 일제히 달게되엿는데 그『마크』는 은빗싼 일원짜리동전남마침 큰것으로 그과색은 각계(各係)에의하여 색이달려 서무(庶務)는힌빗 영업(營業)은 자주색 운전(運轉)은 진흙색 공무(工務)는 푸른색이다 그밧게 렬차의권무자장과 권부의 완장(腕章)은모다 『事務』로 통일하여 려객취급을 표시하게되엿스니 려객은 이 완장을 슬리운일이잇거든 이 완장을두른사람에게 무르면된다 또순구원(巡區員)이 구내계(構內係)의 완장을두른사람은 구내계의 검차(檢車)를 표시하기로되엿다

蓄犬窃盜專門

【仁川】 부천(富川)군서곳면(西串面)고척리(高尺里)김막동(金莫東)(三三)은 지난 삼월경에 인천부내에들어와서 률목리(栗木里)일백십오번지 김국현(金基鉉)의집개를훔쳐가지고 시외로나가서 죽여팔아먹은것이 지난삼십일에야 발견되어 곳인천경찰서원에게 체포되어 방금취조를밧는중인데 그개는 시가십원가치가 된다하며 그외에도십여두를훔치어팔아먹은것이발견되엿다고한다

斜陽松林에苦悶하는 어둠에피는嘆息의꼿

孤兒에서青孀으로다시酌婦로

運命에翻弄된可憐女의自殺未遂

삼십일일 오후다섯시경에 시내청운동(淸雲洞)뒤 제이고등보통학교 뒷산솔밧속에서 나히이십세가량되는 녀자가 다량의류산동(硫酸銅)을 먹고고민하고 잇는것을 지나가던 사람이발견하고 청운동 파출소에 보고하야 곳경관이 현장에출동하야 조사한결과 뎌자는 시내 궁정동(宮井洞)이십칠번지 정종한(鄭鐘漢)의음식점의 작부 김한희(金漢姬)(一名貞淑)로서 그는본래 련천(漣川)태생이던바 일곱살때에 어머니를일코 길러나다가 열다섯살에 인천(仁川)으로 시집을갓스나 신혼의단꿈도 오래지못하야 열여덟살에 남편마저세상으로 보내고는 별써청상과부의 설움을 바더생활난으로 할일업시 이듬해부터는 화류계에 나타나서 우숨을파는것을 직업으로삼는 밤에피는탄식의꼿이되여 지금까지 지내왓스나 팔경인생에 비관하고는 자살을게획한것인데 곳궁정동 이십칠번지로 운반하야 의사를불려서 응급치료를가한결과 다행히 생명은건졋다고한다

郵遞筒六千

조선각지에잇는것

체신국 최근의 조사에의하면 전조선각지에 설치되여잇는우편『포스트』의수가총계륙천삼백 세개인바 이것을전년동긔의 설치수 오천구백칠십오개에 비하야보면 삼백이십팔개가 늘엇스며 더구나조선의 면적과인구에 비교하야보면 약(이십이방리)삼천여백륙십칠인에 대하야우편『포스트』가하나씩이라고한다

京城水泳場 不遠間竣工

거물도만든다

경성운동장수영장(水泳場)은 예축조중이든 『풀』은 방고트는동편것과설계(設計)도듯것스므로근근입찰에부치고 곳 공사에착수하야 느저도구월말까지는 준성할예정이라는데 공비는팔만원으로 경영지(競泳池)락하지(落下池)어린아이풀 관람석과 그밧게필요한건물도만든다한다

十人以上이라도 團體賃金으로

滿鐵、局鐵에實施

최근 격증하는 일본으로부터의 만주조선시찰 수학려행단체로 철도국과 만철에서는려객수입이 근래에업시 늘엇는바이 기회에 더욱만전의『서비스』를하여 권과학교단체에대하야 한층더 운영의힘을 하려고종래이십인이상을 최저단체로인정하든것을 십인이상을 단체로 인정하고종래의 이십인이상과가티 오늘일부터 실시하기로되엿다

天氣豫報

晴驟雨

高氣壓은本邦東海上에서關西方面을經하야北支那方面에잇는外蒙古附近의氣壓配置는不安定하다朝鮮의天氣는大概로晴하나釜山과北方에驟雨가잇다 明日은大體로天氣는조치만驟雨가잇을모양이다

昨日氣溫 最高二十二度八分 最低十五度三分

『쌕국이』소리에 警察도갈팡질팡

귀둥대둥짓거려대는소리가 하나도부합되는것이업다고

길일흔斬頭搜査隊

어린아이머리를 베어버린 범인의 혐의자로 서대문경찰서고등계에서 『쌕국이』를 잡아다가오래동안 엄밀한취조를 한결과그는자긔가 그범행을한 범인인것가치 자백하얏슴으로 그에따라서 그어린아이의몸통이를 차즈려 부근공동묘지(共同墓地)와기타 부근산(山)을 여러번 둘러서파무친 시체를 여러개를파보앗다한다 그러나그가 말한바와는 하나도부합되지안코 또한 무당보자와수양녀를 아모리 엄중히취조해보아도 하나도 쌕국이의자백하는바와는 들어맛지안코 쌕국이 얼굴도모른다고 하얏다한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일면에 지에『쌕국이』에 대한 심문은못하내고 그냥유치는 시켜노코잇다 그래어일오전에 이르러서 쌕국이는 일종의 정신병자로인정하게되고 그범행에대한 관계가 업는것으로 확신하게되엇다한다 그래서『쌕국이』의 귀둥대둥하는 자백으로 그사건의정체가 거이드러나게될번하다가 결국실패에도라가고말은모양이다 이와가치되야이사건의정체는이로부터처되야 한층안으로다시오리무중에서 숨어잇게 되고말앗다

◇棄兒一件

지난삼십일일 오후열시반경에시내 청엽정(青葉町)삼정목삼십륙번지 김홍성(金興成)의집문압헤다가 나히서너살가량의 옥동자를 내다버린자가잇다한다

歐洲行旅客減賃

一日부터내렷다

소화이년봄이래 실시되고잇든 시베리아경유구라파(歐羅巴)가는 단체운임은다음과가티경감하여 륙월일일부터실시되엿다

局線內(二三等에限하여)

十人以上	五割引
五十人以上	五、二五割引
百人以上	五、五割引
二百人以上	五、七五割引
三百人以上	六割引

滿鐵線內(二三等에限하여)

十人以上	五割引
二十人以上	六割引
五十人以上	六、二五割引
百人以上	六、五割引
二百人以上	六、七五割引
三百人以上	七割引

哲學片感 (三)

—哲學을 왜 非難하는가—

朴相鉉

[illegible]哲學은 어經濟恐慌의時代에있어서 一個의「팡」도 굽지못하고 따라서現實을 超越하는學問이라고 非難한다。

筆者의 以上의 말은너무나 事實이다。哲學은 「팡」製造所에서、一個의 「팡」도 굽지못함은 明確한 「事實」임은 筆者도 承認하는것이다 그러나 「팡」을 굽지못한다고 哲學을 非難할것은 아니다。勿論 우리는 「팡」이 있어야 生命을 持續한다。그러므로 現代갓흔 不景氣의 經濟狀態에서는 더욱「팡」을 要求하게된다

그런데 사람은 흔히「팡」에 對한 觀念을 誤解하는수가 있다。그것은 人生生活의 手段價値로서의 肉體的 糧食을 生活의 目的이라고 誤解하는것이 點이다

肉體的 糧食만 豐富하면 生의 滿足을 獲得할수있겠느냐 하면 누구나 그것은 疑問이요 否認할그것이다 사람의 理想을 實現하기 爲하야 附加的 補助的 條件이 [illegible] 사람은아니다

아하서도[illegible]거니와 사람은 物質과精神의 二方面을 具有하고잇는以上「팡」以外에 精神的要求이 必要하은 [illegible]치안는다

筆者는物質的方面에만 重點하고 그精神的方面을 無視한것이아닌가?

우리는 아모리해도 精神은 物體의 主體임을否認하지못한다 그런데「맑스」의 唯物史觀에서는 物質이精神의 主體임을明示햇다 「맑스」가

【社會】

의下部構造[經濟的構造]가인 經하면 必然的으로 上部建築인精神文化(社會的意識形態)가 變動한다고 말한것이라든가사람의意識이 그存在를決定하는것이아니라 사람의 [illegible] 意識을決定한다고 [illegible]한것을보드래도 [illegible] 精神보다 物質을 重要視하야 「맑스」의 唯物史觀은 나에게 [illegible] 足을주지못한다 「맑스」의 唯物史觀은 社會的見地에서 考察한다면그것에一理가 包含되엇슬는지도모르겟다 그러나 哲學的見地에서 考察하면 그것은 假設思想에不過함을 免치못한다 何故이냐하면 「맑스」는 高貴한 精神보다도 物質이 重要하다고 主張한까닭이다

우리는 어떠하지든지 物質에比한 精神의 優位를 高唱하는것이다 人類文化의 進步와 歷史의 進展의 根本的土臺는 物質的條件이아니라 當然히 精神일것이다

그런데 極端的 唯物論者는 物質만을 强調하여 精神을 無視하고 [illegible]을[illegible]하야 [illegible]한다 이러한態度는 唯物論者나 唯心論者가모다 너무나 [illegible]的이며 [illegible]斷的見解에서 나온줄안다 나는 그러한

【獨斷】

的[illegible]으로 [illegible]드러하지안는다 다만 사람이란 精神物質의 二元論的要素로서 形成된것인데 그中에도 精神은 物質보다 重要하고 貴重가된다는것을力說할뿐이다

그러면 精神的生活의 人類生活上地位도 넉넉히 推知할수잇는事實이다 그리고 알려서도 말하얏거니와 精神的生活의 糧食인 哲學은 人類生活上에 直接關係하여 그實際的價値를 供給하는地位에 잇슴도 千言萬語를 羅列할必要업시 直覺的으로 推知할수잇는 明確한事實이다

「팡」이 사람의 肉體的生活의糧食이라면 哲學은사람의精神的生活의糧食이다 「노바리스」는 「哲學은「팡」을굽지못한다 그러나 哲學은우리에게神과

【自由】

와 [illegible]不滅을 주는것이다」라고부르지젓다

以上에서 나는 哲學과生活上關係를 哲學의實際性을 力說햇다 그런데 지금은哲學의 實際性을 歷史的으로 簡單히 考察하여보자

上古希臘哲學思想은 希臘의 文化를 高峰으로向上식혓스며 哲學史上의 希臘羅馬時代에잇서서의 羅馬가 希臘哲學의影響을 만히바닷슴도 歷史가證明하는바이다

近代에와서 英國의 「포레시스·베콘」에 「知識은努力이다」라고부르지즈며 學問硏究의經驗的[illegible] 主義思想이 英國人의 生活을 支配하얏고 따라서 自然科學은 産業의 發展을 [illegible] 會에까지 [illegible]하얏다 [illegible]에 잇서서「[illegible]」의 哲學이 그當時 [illegible]人의 生活에 多大한 影響을 주엇음은 우리의 周知하는바이다

米國에잇서서「제임스」와「쮸이」等의 主張한 實用主義哲學(Pragmatism)이 米國人의 生活內面을 支配하고잇음은 今日의米國의 科學文明과 米國人의生活形式이 알려주는事實이다 如斯히 歷史的으로 哲學을考察하여도 哲學은 우리의 生活과 實質的으로 [illegible]잇음을 알수잇다 要컨대 哲學은 어느意味에잇어서 生活속에서 創出하는 學問임을 아러야된다

[illegible]

新聞雜誌의 文藝選者諸氏에게

여기잇서 筆者는 이機會에 各新聞雜誌의 文藝選者諸氏에게 [illegible] 하여주기 바라며 [illegible]을 犯하기쉬운 文學少年으로서 犯하기쉬운 [illegible] 如斯한 [illegible]行爲가 一日이라도 速히 朝鮮文藝界에서 그影子를 감추도록 서로힘써주기를 懇望하는바이다

× ×

옷호로「세[illegible]」의作者 春波氏에게 —그대는 前年每申에 지금 東亞에잇는 南夕鍾君에게對하야 駁文을 쓴일이 잇섯든가 그것이 그대엿다면 그만한 文章及理論의 所有者인그대로서 엇지하야 이러한 過誤를 犯하엿는가 [illegible] 마지안는바이며또한 前記南君에 對한駁文속에는 [illegible]前에 그대는 엇더한 少年雜誌의 [illegible]을 마러 보일여지잇다고한 그대가 아닌가! 其外에는 筆者元來寡聞인까닭인지 그대의作品을 別로읽지못하얏스며 그대의일을 別로듯지못하얏다 다만數月前每申에서『버마금』이란 一篇을보앗슬뿐이다 하여튼 이로보아 春波도文壇에對하야 關心을가진동무로 [illegible]주가 바라[illegible]

그리고 各新聞雜誌社에서는 當選文藝의 入選者[illegible]에 아는 作者의住所도 반드시 [illegible]하야두는바이다.(李[illegible]山)

音樂時話

待望의……◇ 六月樂壇 (上)

鍾仁生

向上하는樂壇

今春季節의樂壇은 確實히面目이달러젓다 從來의例를보면季節마다音樂會는만헛다 그러나 그內容은 어수선한것이 만헛다 特別로實力도 업는사람들이 獨奏를하느니 무엇을하느니 除興가튼順序를들어노아가지고 聽衆에一夜之樂으로 提供하는類의音樂會가 殆半이엇다 學校나 靑年會等의 宣傳이나 寄附蒐集의範圍안에드는音樂會란 眞正한意味에서 音樂藝術을 宣揚할樂壇的收穫을 目標키힘든것도 否認할수업는事實이다

五月中의收獲

그러튼것이 今春에들어 音樂會數는 例年보다 적엇으나 質的으로 音樂會다운 音樂會가 뒤를니어열리게된것만은 반가운일이엇다 지난五月中에우리는두가지조흔音樂會를 가지엇섯다

그것은 洪蘭坡의바요린獨奏와 洪盛裕 金元福두夫妻의바요린과피아노의밤이엇다 洪蘭坡氏는歸鄕後의첫音樂會로 [illegible] 그리익부룩等浪漫樂의三巨匠의것을들려주엇다 조흔音樂會이엇다

氏의留學은 比較的時日이짤벗다 그러고氏의演技는 어느程度까지를이 빈히것이잇든터이라 그의지난번 獨奏會에서 與變的인엇던새演技를 크게企待키어려웟나 그러나 氏가留學中닥쳐온見聞은 [illegible]히 씩지안은것이잇슬것이니 今從演奏家인同時에 보다더 嚴重한硏究的音樂家로서의 精進과樂壇的活動을보다며 企待함이 妥當할것갓다 그리고 洪盛裕氏나金元福氏도 모다能熟한技巧를가진演奏家로 엄이 定評이잇든분들이다 當夜는비에걸치어 會合은 豫想갓지못햇스나 音樂會로서는內容이 퍽탐탁하야 近來에드믄成績을거두엇다

朴慶浩氏獨奏

새달의六月은 우리樂壇의가장尊敬밧는 피아노音樂家의朴慶浩氏獨奏(六月二日)로비롯한다 氏의피아노는技巧가 圓熟한境에들은것은勿論 그의解釋에들어서 한번敬意를表할點이 잇슨러이다 演奏家에게企待할것은 첫재로曲을直感할만한頭腦와同時에 技巧를要하나 技巧가어느限度까지 習得되여에 다시要求되는것은 一段새로운 飛躍을할만한 天才的頭腦!理解力이다 말아서가튼이라도그 表現은 大幅의差를發見할수도 잇는것이다 朴氏에對한企待는 여기에잇다

千圓懸賞小說募集에對하야

各方面人士의激勵

底力잇는作品을

朴勝彬

門外漢의 소리 = 低級多數의 歡心을사기를主眼으로하지아니하고 (從來에그러한氣分이만하엇든듯誤解인지?) 社會敎育上文學的價値가 豐富한偉作이 나타날機會인것을祝賀합니다 愚慮로는智에도 大人的智 小人的智가잇고 愚에도그러하며 善에도 惡에도 鬪에도 和에도무엇에도다그러한데 그氣分은 作家의 措辭에 달린것으로생각합니다 後者를描寫하는달름한곳 보담前者의 氣分을 나타나히는 底力잇는措辭로 構成된著作이 當選되기를바랍니다 乞恕無辭

混亂·矛盾

第十二回朝美展 二部、三部를보고 (五)

鮮于澹

第三部 工藝

아직搖籃期에잇는美展工藝가 그힘이 至極히 微弱한것은 世上이公認할것이니 여긔에左右를가려論할餘地가 업슬듯하다 그러나 應用美術로서의工藝가 直接우리生活에주는 福利는그 效果가莫大할뿐아니라 工藝는 美術界의一重大部門이며 産業發達上 緊要한任務를가지고잇는것인以上 그리고朝鮮에잇서서는 그나마美展工藝가工藝品의 唯一한 發表機關이니만큼 今後로이양에미치는影響은 莫大한것이라고생각할때 여긔에 關心을가지지안흘수업다 더구나朝鮮은 工藝品에對하야는特히過去에燦爛한盛旺期가잇섯고 暗黑한衰退期가잇슨後의今日에 이르럿스니 一層精力的으로努力하야 復興과創路를開拓하여야할重大期에잇서서라

鄕土色을일엇다

工藝는即應用美術이니 藝術的立場에서의 直接生活의有用과 滿足을目標로하는 工作的行爲일것이다 따라서朝鮮工藝의朝鮮에잇서서의時代的環境과 民族의趣味 性情에適合한것이야할것이며또自然히 그러케될것이다

勿論時代의흐름과 文化의變遷을따라生活의 內容및形式에變動이잇슬것이며잇서야할것이나 그러나 거긔에도太古의祖先부터바다온 피ㅅ줄과 獨特한自然에서바든影響으로써 完成된 民族固有의 趣味와性情의獨特한一系가 內在되엿슬것이고이것은無形이면서도 有形한이양의美術工藝의 原動力일것이다 朝鮮에서나흔工藝엔 朝鮮의鄕土色이잇서야할것이며 作者가良心에서 創作의길을밟을때에는 鄕土色은반드시作家가 具備하지안흘수업는條件이다 이點으로보아 出發의初程에잇는 美展工藝가不取하고잇는傾向에對하야는 一大反省이必要하다工藝作品의一般이 技術과規模에잇서서의微弱與否를제처노코이 工藝作家이取하고잇는製作態度에잇서서帝展의그것을無反省하게도唯一의標本으로삼는이와內容업시朝鮮色彩를故意로내려는 日本사람들의所作이다갓치審査의成績만을目標로하는點은到底感心할수업다 一例를들자면橋田氏의 朝鮮膳이나淺川氏의蒼龍갓흔것은 作者의技術도能치못하거니와 도모지創作力이업는純全한 模倣이라고볼수잇고 題材를 朝鮮에取하여 珍異한맛으로써 日本서오는審査員의 歡心을사자는데 지내지못한다

朝鮮에는 近代에衰退되엿스나古代부터工藝의大發達이잇섯고 지금도物博館이나處處의古墳이나 年舊한家庭에서도각금볼수잇는 陶磁器 鍮銀物이며 裝飾螺鈿의妙며 木造木彫의家具等 一一히枚擧할수업는 만흔古代工藝의 놀나운遺作을볼때마다過去를讚賞하며 可惜하게도衰退된今日을 恨歎하는自他가다갓을줄안다

이런過去를갓고잇고 이런傳統을바다온 現在의우리生活도時代의洗禮를바든 그傳統的作品을要求할것이안일가한다 美展工藝에要求하는바는 좀더朝鮮의香냄새가나는 이時代의作品을要求하며 家具、衣類、裝飾品等의廣範圍의 作品을公開하여相互硏究에貢獻잇기를바란다

工藝도純粹藝術에 立脚할것

作品의大部分이 技術이 오히려 作品은죽이는것갓흔感이잇다 純正藝術의立場을떠나서 오직手指의熟練으로만製作하기때문에形體의構成이며 紋樣의考案이며 色彩의調和等의「예자인」이沒却되고表面의고흔맛(小キレナ)만을내려고努力하니 結局作品은잠고만다 오히려村落의市場이나 山村방아간에서 이보다더興味잇는 工藝品을볼수잇다 이는 그作者가藝術的認識을가젓다고는할수업스나 生活環境에融合한率直한自己의趣味에서우러나온作品인까닭이다 맛당이朝鮮사람으로의率直한藝術創作의良心을가지고不斷의努力할것이니 指端의技巧만이能이아니다

作品各個

會場에서 그래도姜昌奎氏의作品이出衆한佳作이고 石野氏의特選과五十嵐氏의無鑑査는 單純한그技巧的手法이 조흘따름이

伊氏의「브라이팡카ー로ー」는實用的構想은조흐나色彩가現代家庭의色彩的環境에는不適當한것갓흐며形體에서보는感(カンジ)이또한鈍하다

場中의 第一佳作이라고볼수잇는 姜昌奎氏의 蒔繪漆盆은藝術的創作味와 技術이能하지만은帝展의 傾向에만合流하려는點이 不少하며 手法이瀟洒하지만 朝鮮味가稀少하다朴讓鎬氏의螺鈿漆器는 主材를朝鮮에取하면서도 裝飾과 螺鈿手法等에서오는 感이異國人이 이를扱한파갓흔 感이不無하다

고大橋氏의「色釉タイル」는 釉藥燒出의效果에偶然效果가잇슴으로 無雜한調和를볼수잇스나全面에理由업시 晳利的商品이라는點이不滿하며 金屬鑄銀物中엔山本貞治氏가그中낫고 陶磁器中엔宗高氏가조코 其外엔別로조흔것이보이지안는다

淺川氏의蠟纈染色은 場中唯一의染色物이나 初學의低級品임을未免한다 全體의色彩에濁氣가잇슴은 素布와色의性質을모르는것과 混色의拙劣한탓이고 人形紋樣의處處에는 脫蠟에不完全하데다가着色하엿슴으로色의定着的手續을못되엿슬것이다

文·壇·餘·聞

五十圓짜리우동

李甲基君은 잇다금 외로히本第에게신그의老母를뵈려고 大邱로나려가곤한다 언제인가 한번은老母도뵈이고 돈도좀가지러 나려갓다가 上京時大田驛에 列車가당도하자 車窓밧게서 「우동」냄새가코를찌르는지라 元來大食家인그는 그러히참지를못해서 下車를하야 대번에여섯그릇을 征服하고서울와보니 洋服안「포켓트」에너허둔大金五十圓也가온데간데업서젓다

君은그후로는눈을더욱크게 뜨고눈알을휘휘돌두며 그길숙한입술을실룩거리면서 「허—!나도개법 慈善事業을 햇군!우동 멧그릇에五十圓을 선듯하게말업시 버는사람은 아마도古今에그類例가업슬걸!」하고苦笑ㄹ도화만한 度量만은귀여운점!

創作 鼠火 (五)

李箕永

二

원말최소사집 윗방에서는희미한 석유등잔밋헤네사람이상투를마주보고안젓다 그엽해는 머리를얻진 로파가쌔드렁니를 내밀고 볼쥐을예며안젓다 로파는장죽을쌔치고 안젓다

돌쇠는 투전목을잡고 척척켜서 주무룩그어가지고는 아식을 몰고나주나서자괴패를쌔기패에게 떼여언친뒤에한장 보더니만

『자ー 드려갓네!』

하고 꽤장을투전맨위로 엄퍼느엇다 그리고애기패에게ー

『엄마 실엇니?』

『일원 래라!』

성선이는 꽤상을엎허노코오십전짜리은전두푼을 쏘내노핫다 돌쇠는 그대로 일원을래원노코 다시완득이에게

『먼 얼마나?』

『난·오십전햇다』

『또 지네는?』

『난 때가 잘모못럿는데……예라 일원노케!』

응삼이는 주저하다가 지전한장을 쏘내노핫다 돌쇠는애기패에게 돈을 쳐대로 다래노은뒤에 투전목을 다시청선이에게 몰녀대며 눈을 끔쩍끔적하엿다

성선이는 투전장을 쌔여서 먼저놈파 마주컵처가지고 번썩드러서 두손으로죄여보더니

『되엿네!』

그담장을 완득이가쌔서 조여본다

『난 드려갓네!』

그는 한장을쌔서 다시조여본후에 자리에엽헤노핫다

응삼이 차례다

그도 벼벌떨니는손으로 투전장을 쌔여서 서투르게 조여보더니

『나도 드려갓서!』

하고 한장을 다시쌔엿다

돌쇠는 투전두장을 쌔여서 그의큰입을 옴오리고 싸드득소리가나도록 조여보더니만다시한장을드려가자 별안간 활긔가나서 소리친다

『자ー들셔라구!』

『서시!』

돌쇠는 성선이압헤 노힌돈을 적ー긁거드렷다 완득이가 석장을 쎠놋는것은 一六八진주엿다

『난일곱끗이야!』

하고 응삼이도 석장을 쎠노으며머리를극구데둥쇠는것친업시 응삼이압헤 노힌돈도 소리개가병아리 움키듯 집어다리면서

『링산만리일괴주)靑山萬里一孤舟)七七五 도대갑오 흔들거리고떠온다!』

축작키는데 그것은 분명히五七七갑오엿다 응삼이는 두눈이 둑불거젓다 일곱끗으로도 못먹는것이분하엿다

『이런 제ー마ー아니 속어지안나』

『속이긴 어느제미붓흘놈이속여! 그럼 네가 패를잘으람!)』

돌쇠는 핀잔을 주엇다

응삼이는 대뜸머리를 다시극적극적하엿다 그는 망건도 안쓰고 맨상투바람으로 사랑에서 자다가 볼들너 나왓다 그는 돌쇠가 꾀수는 바람에 섯달금음께 소관 돈의절반을 가지고나와서 거지반 다읽엇다 가슴이두근두근하고 눈이 캄캄해서 벌서부터 투전장도 잘보이지안는다

『아주머니 무엇 먹을것 좀 해주소 한잔먹어야지 속이 출출한데』

『무슨 안주가 잇서야지』

로파는 볼쥐연돈을 주머니에느며 쌔드렁니를벌니고 웃는다 아래ㅅ방에서는 아해들이 코를골며 정신업시 잔다 뒤ㅅ산솔밧허서 부엉이가운다

『제락이나 한줄 삶으시요 두부나 한모지지고ー안주갑은 내가내지』

돌쇠는 계란갑과 두부갑을 짤그럭거리는 호주머니에서쓰내노코 다시 애기패에게 때ㅅ장을 몰녀주엇다

『얼마야?』

『이런 제ー미!』

응삼이는 또 패ㅅ장에잘못돈데 속이상해서 동신가튼소리를 흐지중얼거렷다 웬일인지 패ㅅ장은、장ㅅ자가안어면 『새오는짜가드는데 두장을대기는안되엿고 석장을 드려가면 영낙업시 욧수가더줄엇다 그는 처음에는 웃수가잘나오더니 차차 주려드러가는것이웬셈닭인지를몰나서 이상하엿다

그동안에 안주인은 앗가사온 술을병채로데우고 술상을차려서드려왓다 무밋동김치의 줄거리가 개상소반에느려지고 콩노기속에 두부ㅅ점이 둥둥썻다 온몸의골라분한 홍문지내가 지독한연초(葉草)란내와 시크무려한 간장냄새와 어울녀서 일종의야릇한악취를발하엿다

성선이는 술병을 기우려서 우선 로파에게한잔을권한후에

『자ー너먹어라!』

돌쇠는 렵렵한 막걸니한사발을 바더들고 한숨에 쪽ー드리켯다

『아ー조타! 목이 컬컬하도니』

팔뚝가튼 무밋동을들고 줄거리채 어석어석씹는다

新刊紹介

▲何を讀む可きか (特輯號)定價金十五錢也 東京市神田區美土代町二ノ一白揚社內「何を讀む可きか」社 振替東京二五四〇〇番

▲大邱米穀取引所月報 (六號) 大邱統計、朝鮮統計、[illegible] 發行所大邱府大和町六五 大邱米穀取引所)

▲速記硏究 (五月號) 定價十錢 行所京都市上京區千本通鞍馬口上東入京都速記硏究會 振替大阪五五二六四番

▲佛敎 (五六月合號) 新興國의宗敎運動 迷信과文化其他 定價二十錢發行所京城府壽松洞四四佛敎社 振替京五四八二番

▲天國福音 (第五號)定價五錢 發行所京畿道始興郡鷺梁津里一八〇天國福音社 振京一五九九六番

第二回

普專學生劇公演會

時日 六月 日下午七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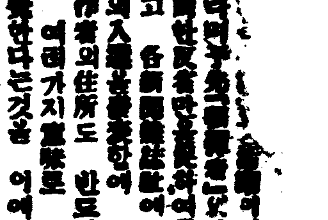
場所 長谷川町公會堂

主催 普專學生會演藝部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入場料 追後發表

002183



林巨正傳 (104)

洪碧初 作

과오주 (三의十四)

오주의안해가 눈을 흡뜨고 누어잇는데 그눈이 술질에에 쓰는사람의눈과 가텃다. 오주가 장모를 떼밀다시피하고방으로 들어와서 안해에게가서 펄석 주저안즈며 곳 억개를 쥐고흔들엇다

『여보게 정신차리게』

『여보게 장모님오셧네』

『장모님 오셧서』

오주가 려경히 큰소리를질러도 오주의안해는 대답이업섯다 장모가 이것을 보고눈썹위를 붉히면서

『커리 좀 비켜나게 나좀보세』

하고 오주의버켜주는 자리에 들어안저서 입을딸의귀에다이다시피하고

『이애 어애 정신좀 차려라 이애 어애』

하고 목메인소리로 불르니 대답은 여전히업스나 바로섯든눈동자가 돌기시작하며거더들렛든 눈꺼풀이 나려덥펏다 오주의안해가 참업시 자치르는아픔을 백이다못하야쳐물처듯이 정신을 일헛다가귀에익은 어머니목소리에 정신이돌아서 거북스럽게 눈을 뜨고

『올치 인제 정신이낫구나』

하고 어머니가 딸의손을쥐엇다

『어머니』

하고 손을 잡으라고 더듬

『살어낫군 살어낫서』

하고 오주가 안해의얼골을 드러다보는데 오주의안해는

『아이구머니 아이구머니』

하고 앓는소리하다가

『어머니 물좀주』

하고 말끗에속을 벌려보이엇다

『더운물에 잇겟나』

『찬물은 먹여 못쓰우』

오주가 장모의말을듯고 부엌으로 물떠우러 나갈때 장모가 방바닥에 손을 대어보며

『방에차니 불솜 나우너켓』

하고 브탁하얏다 오주가불을 한솟을 붓고 불을 때는중에 장모가 나와서

『불이 그저 안더웟나』

하고 숫을 열어보더니

『무슨물을 이러케만이 부엇나 에 사람두』

하고 간신히 거렁될물을사발에 조그만치 떠가지고 들어가며

『어서 불이나 만이쎄게』

하고 오주를 돌아보앗다

오주가 불을 더때는중에 안해의 앓는소리가 노파커서오주가가서 방문을 열고

『왜 더아푸다오』

하고 방으로 들어가랴고하니 장모가 손을 내커으며

『얼른 문닷치게 그럼구 자비는 들어오라기건연 들어올것업네』

하고 말을 닐러서 오주는다시 부엌에와서 입나무를 아궁에 굴어너코 안커잇섯나 한동안뒤에 안해의 씽씽 애쓰는소리와 장모의 엇차엇차하는 소리가 들려기시작하야 오주는 공동이예좀이 쑤시어서 가만이 안커잇지못하고 여러차례 방문밧게가거기웃기못하얏다 헤가거의 다커갈때 방안에서

『오아오아』

갓난애의소리가 낫다. 부엌에서 입나무를밀고 퍼더버리고안젓든 오주가 놀란사람가티 뛰어닐어낫다 반문밧게가서는 고지식하게 방문을 열지안코 방안에잇는 장모에게 말을 물엇다

『낫지요』

『낫네』

『무어요』

『남작일세』

『고추가 아니란말이야요』

『나는 그런변 물으운』

『사내가 아니구 기집 애란말이야 섭섭한가』

『년이라두 낫스니 조켓만 년이 놈만하겟소』

『그려치』

장모의웃는소리가들리면곳

『깨웟소』

하고 물으니 장모는

『아직』

하고 대답하면서도 뻑셋다

『장모님 들어오라면 쉬우 남자이가 들이 쉬되 얻기 그래서 웃소』

하고 오주가 우스은말로 노차

『예 어서잇게』

하고 장모는 웃음을 소리엇다

『이제 좀 들어갑시다』

『조금더 기다리게』

『고만 좀어가겟우』

오주가 장모의들어오란말을 기다리다못하야 나중에

하고 곳 방문을 벗겨여니

『어른 들어오구 문닷치게』

하고 장모는 바람을 막느고라 갓난애모자를 블으로가리엇다

刀圭漫談 (五)

産幣婦

大金百五十圓也

獨立醫院 尹炳欽

얼마전의일이엇습니다 엇던녀인이 나의진찰실을차저와서 홍문종 좀처달라고하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만흔홍문병환자를대하엿섯지만 이녀인갓치홍문을 좀처달라는환자는처음맛나게되여 한호긔심에 살렷셧습니다

다자란사람이 홍문이막히어

갓난애로서 혹시홍문이맥혀 쏭을누지못하야 수술하는일은 잇지만 이러한청인으로서홍문이맥혓다는것은 반다시후천적이겟는데 엇더한병으로 엇더케홍문이맥혓는가하는 한흥미거리도되여 연구의자료도되기때문에반가히 그녀인을마지하엿습니다

그녀인은 벌서수삼일전부터 쏭을누지못하야 얼골이 놀하게 혈색이변하고 사지가느른하여 아조긔운업시보엿습니다 여러날쏭을 누지못하기 때문에 안에서『와쓰』가생기고독물이생겨서 속이편치못한자모양흘하여가지고 차저왓든것입니다

홍미의 연구재료 한막의 넌센스?

그리하야나는진찰하기전에그의병세를들어보앗습니다 그리고 그의대답을자세히듯고는얼마나속으로 우서웟든지 뱀이뜬허질번하면서도 그를대하야습니다 그녀인은 더욱붓그러운듯이 웃쌔지니야기를하엿습니다 나는그것을최다듯고 내가연구재료라고 긔대하엿든것과는너무나 떠러진한『넌센쓰』극에지나지안허 곳변소로달려가서 우슴을좀진정하여가지고돌아와서 그녀인의홍문을괴게로열고 안에들어잇는몰건을 쓰집어내어주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겟슴니까? 놀라지마십시오 그것은좋음액이 일백오십원이나되는지폐뭉텅이엇습니다 그녀인은돈을홍문으로나흔것입니다 여편봉문은 이런명이잇다면 나도나도하고한번그병에걸리고십허하시겟으나 그것은그만한자금이들어야 걸리는병인것입니다

서울오는려비 안전한 가직처

그녀인은 사골사는 사람인데 평생에처음으로 서울구경을 [illegible]나가지고 서울로 온것이엇습니다 그런데그는 평소에 돈기를서 울이란곳은 아조무서운곳으로『스리』의협잡배가만허 조금정신을안차리면 반지를낀 손구락까지 업서진다고하며 거리에나가 웬만큼돈을빨다가는 의복까지쏙벗기우는 생눈알도 쌔먹는곳이라하야 러비를 간수할장소에 곤란하엿다고합니다 그리하야최후로가장 안전한곳이라고 생각한것이 홍문이엇습니다 그래서 일백오십원의지폐를 돌돌말어가지고 홍문에넛코 서울로올려와서돈을쓰집어내려하나 작고도로들어만가고 나오지를안허 애를쓰다 합니다 그러나 쏭을눌때에는 자연히가치나오리라고 생각하야 뒤매련기를 기다렷으나 뒤가무출하여지기만하면서 쏭은 나오지안흠으로 한시가이상을 힘을드려도지폐도 쏭도안나오고 홍문만 압흐다고합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엇더케할수가업섯고 배만불너가며 몸에열이음으고 맥이풀니어 붓그려운것을 참을수업시 나의병원을 하저온것이엇다고합니다

그것은 홍문에너흔 단단하게 말린지폐뭉텅이가 가로막어서 그러케 고생을한것이엇든것입니다

讀者市場

【問】 普校卒業生이온데 裁判所書記及其後辯護士試驗을볼랴고하오니 詳細히下敎하심을바람니다 (高興一讀者)

【答】 中學卒業生으로辯護士試驗準備하는데는一、專門學校乃至大學出身者와 連絡하야法律英語常識을닥그고 二、法律講義錄(早大法學)을精讀하시오

【問】 劇團春秋劇場은 지금 어느곳에서公演中입니까 그러치안으면 現在그存在가나마잇는지요 春秋劇場 [illegible]金仙草는 지금 어데잇스며 그의住所는어데입니까 (慶州一讀者)

【答】 그동안北鮮地方으로巡演興行을맛추고 도아온後엇더케되엿슨지 알수업습니다 다시鍾路二丁目「맥시코」에알어보십시오 金仙草는 春秋劇團에잇지안는모양인데 個人住所는알수업습니다 (一記者)

青眼의비최인 陸士國人의生活

今日休載

大恐慌克服의 「唯一한最後方策」【二】

統制經濟의正體曝露

黃俊郁

이에 失敗한 資本家와 政府는 이번은 아주 國家政府의 힘으로 土木事業을 일으키기로 하엿다 이것은 國家가 資本家들 대신 事業을 일으킴으로서 失業者를 救濟하야 消費力을 增進식히는 同時에 財界의 流通을 圓滑히 하고 그동안에 資本家들이 뒤를 이어 新規事業을 이르키기를 바란 것이다 從前의 恐慌에는 國家의 權能에 依한 이러한 方法이 效果가 만헛스나 이번에는 別로히 效果가 업섯다 病이 고질이 되엇슴은 機械는 少許의 기름을 부엇다고 도라갈 것이 아니라 效果가 잇엇던 일단 그 資金은 또한 國家의 빗이니 公債에 依하나 通貨膨脹의 手段에 依하지 안코는 그 資金을 어들수 업섯기 때문이다 그러치 안어도 過度로 膨脹되여 잇든 各國의 信用은 더욱더 膨脹되여 金融恐慌의 危機마저 促進식힌 셈이엇다 恐慌은 漸漸 가튼 데로 들어갈 뿐이고 世界는 漸漸 修羅場에 갓가워 감으로 各國의 政府는 政治的 外交的 乃至 軍事的으로까지 恐慌克服에 沒頭하고 잇다 恐慌에 依한 經濟的 危機는 몰시 政治的 性質을 가지게 되여 여러나라의 政治的 危機를 形成하고 여러나라 資本家는 當面한 政府의 獨立에 依하야 이 危機를 突破하려 하고 잇다

(三) 新對策으로 權力의 依賴

이와가치 資本家는 自力으로 恐慌을 克服하기에 힘을 면할수록 漸漸더 政府의 힘에 依賴하게 되고 政府側으로서도 自進하야 恐慌克服에 努力하지 안흐면 안되게 된다 消極政策에서 보다 土木事業에 잇서서 政府의 힘이 더 만해지고 外交關係에 잇서서 더욱더 만허젓다 資本家가 政府에 依賴하는 바가 만흐면 만흘수록 그들은 政府가 더욱더 强固하기를 바라게 된다 그럼으로 그들은 恐慌이 深刻하여 갈수록 政府를 支持하는 熱이 强烈하여 가며 愛國熱이 漸漸더 뜨거워 가는 것이다

다만 恐慌克服을 爲하야서 그려할 뿐 아니라 資本家互相間의 競爭을 調整하기 爲하야서도 또한 그러하다 不景氣로 하야 產業의 存續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生產業上 競爭은 그 激烈을 極하는 것이요 지금 現在 激烈을 極하고 잇다 平時 가트면 所謂 適者生存의 原則에 依하야 競爭中 自然히 弱者는 淘汰되고 말것이나 지금에는 大資本家 小資本家가 다가치 疲弊困窮에 빠저 잇슴으로 競爭하면 雙方이 다 엇구러질 것이다 더욱이 弱者가 假令 陶汰된다 하여도 그것은 相當한 時日을 要할 것임에 잇서서랴! 그러타고 前途에 利益을 豫見할 수 업는 것을 買收 또는 合併할 수도 업는 것이요 現在의 窮境에서 犧牲을 하여 가며 協定을 할 수도 업는 것이다

競爭도 할 수 업고 減產協定도 할 수 업고 買收合倂도 할 수 업는 產業은 景氣로 하야 서로서로 不利한 競爭을 하고 잇스니 이것은 生命的 競爭이라 資本家의 死活에 關한 問題라 아니할 수 업다 여기에서도 國家政府의 힘에 依賴하지 안흘 수 업게 되엿다 國家權力에 依하야 生產을 制限하고 不適當한 中小企業을 陶汰하지 안흘 수 업게 되엿다 여기에서 大資本家는 더욱더 政府의 强力한 統制를 要求하게 되는 것이다 經濟問題가 단순한 經濟問題를 떠나서 漸漸더 政治的問題의 性質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할 도리 아니지만 지금 가치 經濟問題가 政治權力을 切實히 强烈히 要求하는 것은 前에 업든 바이다 어데까지 企業의 自由 商業의 自由를 高調하든 資本家도 自由競爭의 原則을 내버리기 [illegible]

가치하고 어데까지 個人의 自由를 高調하든 뿌르조아 思想家들도 自由의 制限을 새로히 부르짓게 되엿다 產業上의 自由 個人의 放縱한 自由 自由競爭의 原則은 究竟 資本主義初期의 자장가로 이미 이처버리기 시작한지 오래 되엿지만 恐慌에 오든 동안 시달리고 對策을 거둘하야 失敗한 오늘 資本家側에서는 所謂 「自由의 原則」을 아주 抛棄하지 안하면 안되게 되엿다 產業上 自由의 原則에 依한 結果 지금 가든 窮境에 빠진 以上 실로 조흔 인제는 「自由」를 버리고 强力한 무엇에 依하야 產業을 統制하여야 할 것이다 强力한 무엇이란 結局 國家의 權力 政府의 勢力이란 것은 前述한 바이다 더욱이 政治에 對하야서도 偉大한 勢力을 가진 金融資本家는 國家의 政府로 하여금 產業乃至全經濟를 統制식힐 수도 잇는 것이다

八年度의 低資 各道割當額

總額二百四十五萬圓

七年度부터 繼續事業인 時局應急施設事業에 依한 八年度預定低資金의 各道別割當額은 이미 大藏省의 承認을 어더 目下 拓務省에 同意照會中인데 總額二百四十五萬圓으로서 大體 兩年同樣 左와 가치 決定될 터이라 한다

京畿道	一八七千圓
忠北道	一三〇
忠南道	二六一
全北道	一七〇
全南道	一八八
慶北道	五六二
慶南道	三五〇
黃海道	六〇〇
平南道	七〇〇
平北道	一〇〇
江原道	二四八
咸南道	七五
咸北道	四九
計	二、四五〇

米棉軟化

【紐育一日發電通】 米棉은 軟調를 呈하야 二포인트乃至九포인트低로 引締

爲替小高

【聯合紐育一日發】 本日米日爲替는 六仙高의 二十八弗五十六仙으로 되얏는데 市況은 不透明

紐育株式强調

【紐育一日發電通】 本日紐育株式市況은 强調를 呈하야 鐵道株는 平均九十八仙上騰하야 四十三弗四十仙으로 一九三一年以來新高에 達햇스며 스틸은 八分五高의 五十二弗二分一 아나콘다는 二弗高十八弗八分一

朝鮮產過剩不拘코 蠶種移入은 不可

過剩廿萬枚移入五千枚

朝鮮에 잇서 蠶種需要數量은 春夏秋蠶期를 通해 約百三十萬枚인바 朝鮮內蠶種製造數量은 約百五十萬枚로 約二十萬枚는 生產過剩의 狀態를 보이어 一萬枚內外가 日本內로 移出되지만 그 反面에 日本內로부터 移入蠶種은 昭和七年中에 平附二千七百八十八枚 框製二千百九十五枚 散卵二百十五枚 袋製百八十四枚 計五千三百八十二枚에 達한다 移入이 全然 업는 道는 咸北, 平南, 平北, 忠北, 黃海 五道요 五百枚以上이 移入되는 道는 慶北, 慶南, 全北, 京畿 四道로 自道의 蠶種이 生產過剩이면서 移入을 하는 理由는 從來慣習으로부터 日本產을 飼育하려는 傾向이 잇는 까닭인바 漸次鮮產種으로 고치어 참다운 蠶種獎勵를 促進하여야 한다고 當局은 말하고 잇다

日本內麥作 收穫豫想

農林省發表

【商通東京發電】 農林省發表에 依한 三府三十五縣(北海道 東北八縣을 除코)의 麥作付反別은 大麥二十二萬七千五百八十二町 裸麥四十二萬一千三百七十四町 小麥五十三萬九千四百十九町 計百二十三萬八千三百八十町으로서 前年에 比해서 二萬一千六百九十四町(一分八厘)의 增加로 五月二十日現在에 잇서 收穫豫想高는 大麥五百四十四萬九千百八十石 裸麥五百六十三萬一千石 小麥七百四十六萬七千六百八十石으로서 前年實收에 比해서 大麥五十三萬三百五十一石減少 裸麥八十二萬七千三百六十六石減少 小麥은 百五十七萬八千五百六十四石의 增加라 合計에 잇서는 二十二萬八百四十七石(一分二厘)의 增加를 보인다

米穀統制가 本格化?

農林局에 米穀課가 된다고 前부터 宣傳하얏스나 結局 農務課의 一米穀係가 實現되기에 그치고 말엇는데 本日부터 새로이 雇員十名을 採用하고 다시 官制의 改正을 기다리어 技師一名 事務官一名 屬三名 技手五名의 增員을 볼 터로 그로서 米穀統制와 生產費調査는 이제 本格的으로 될 터이며 農務課의 定員은 判任以上十一名 囑託十九名 雇員三十五名 合計九十五名이다

面積의 增大보담 集約的多收穫

當局의 棉作獎勵方針

八年度로부터 十個年 三億斤을 目標로 着手한 朝鮮棉花增產第一期計劃은 九年度로 第二年째에 들어가는데 總督府에서는 面積增大보담도 集約的으로서 收穫增大를 主眼하야 獎勵되고 거기에 方針이니 그 方法으로서 麥의 間作 婦人共同耕作圃의 設定을 獎勵하는 同時 使用堆肥의 品質改良에도 힘쓸 뿐이라고 하고 또 婦人共同耕作圃는 一面一個所以上을 目標로 來年度以降 一層 馬力을 돌릴 方針이다

農務課長會議 六月下旬開催

各道農務課長會議는 六月下旬에 開催될 豫定으로 目下準備中인데 主要問題는 農村振興對策을 中心으로 해서 各種協議할 터이다

產業懇談의 一枝 水產部會도 開會

二日까지續會할預定

產業懇談會水產部會는 一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三會議室에서 開催되어 出席者 朝鮮간즈메專務岩倉守男氏 第二十師團經理部長 丸本彰造氏를 비롯하야 民間側委員十三名 總督府側으로부터 穗積殖產局長 兵頭水產課長 松野 北野兩技師 長友水產試驗場長 吉田鐵道局長 山田營業課長 水田司計課長 林理財課長等 二十數名(總督은 徵恙으로 欠席) 穗積殖產局長이 開會의 人事에 이어 陳述로 各意見交換에 들어갓는데 懇談項目은 如左하다

水產金融 販賣方法 水產團體統制 對滿貿易遠洋漁業 運賃關稅 漁港利用 漁村經濟

大連汽船의 日本海進出

當分間實現無望

【東京一日發電通】 大連汽船은 新潟, 北朝鮮間航路를 中心으로 하야 日本海進出을 企圖하고 잇는 逆回航路의 日本內沿岸會港의 許可를 逓信省에 陳情하는 同時 下拓務省과 呼應하야 그 實現運動을 行하고 잇는바 거긔에 對해 逓信當局의 態度로서는 日本內及北朝鮮間에는 이미 北日本汽船으로 하야 敦賀北朝鮮間을 受命航路로 하야 去四月一日부터 就航시키는 一方 北陸汽船으로 하야금 新潟 伏木 北朝鮮의 循環航路를 就航시킬 方針이요 또 前日 外船輸入許可制實施에 當하야서는 航路統制의 見地로서 大連汽船의 日本內航路進出은 極力阻止取締의 旣定方針임으로 當分間 實現은 無望

物產協會總會

朝鮮物產協會에서는 二日午後一時부터 總會를 열고 左의 件을 附議한다

一、昭和七年度事業報告及決算承認의 件
二、同八年度豫算承認의 件
三、任員總改選의 件

京城府內의 三信託

配當額과 其他

京城府內三信託會社의 五月末現在에 잇서 信託財產其他總會日程等은 如左

▲朝鮮信託 信託財產 二、一五〇、〇〇〇圓 內不動信託 四〇〇、〇〇〇 運用 一、二〇〇、〇〇〇 重役會는 十日前後 總會는 二十三日頃 配當은 信託配當六分三厘 株主配當六分模樣

▲朝鮮土地信託 信託財產 一、八二九、五五三 運用 一、三〇五、五〇〇 預金 五二二、五〇〇 重役會及總會日程未定 信託配當은 七分三厘 株主配當은 六分의 見當

▲共濟信託 信託財產 一、二四三、〇〇〇 運用 九二六、〇〇〇 前期에 比해 信託財產二十五萬圓 運用十五萬圓의 增加 重役會는 五日 總會는 二十日 豫定 信託配當은 七分五厘 株主配當은 六分으로 內定

蘭景氣로 硫安도 活況

所藏不多타 一齊停賣 會社側에 對한 非難紛紛

【商通東京發電報】 硫安은 都賣商의 所藏不多인 때 마침 需要期에 들어가 蘭高로 猛烈히 買進이 잇서 各社一齊히 停賣되얏는데 그로서 會社側에 對한 非難의 聲이 잇다

仁穀의 復歸 『鮮航』承認?

仁穀의 鮮航同盟會 朝鮮米運賃協定復歸에 對한 問題는 朝鮮支部로부터 本部에 移牒하얏는데 本部에서는 近日中에 評議員會를 開催코 本問題를 協議할 것으로 同盟會로서는 穀聯과의 關係도 잇서 滿場一致로 그 承認이 確定되자 만 支部를 通해 온 昨年五月一日부터 本年四月末日까지의 五分及季末累進戾拂은 다른 데 미칠 影響을 考慮해서 條件付로 支給할 模樣이다

東萊銀行과 合倂 湖南銀行도 可決

【光州支局發信】 지난 三十日 東萊銀行株主總會에서 湖南銀行과 東萊銀行의 倂合을 決定하엿슴은 旣報한바 어니와 湖南銀行에서도 지난 三十日에 株主總會를 開하고 現在 湖南銀行資本金 一百五十萬圓에서 五十萬圓을 增資식혀 二百萬圓으로 하야 가지고 東萊銀行株主에게 給與키로 하엿스며 湖南銀行業務課長 金庶務課長 具宗泰氏를 東萊銀行에 出張케 하야 合倂手續이 終了되도록 滯在케 하엿다 한다

朝鮮蠶業令 革新的改正

懸案中의 朝鮮蠶業令改正案은 目下 總督府農務課에서 審議中으로 同令施行規則에 對한 改正改廢에 잇서서 各道意見을 取集해 研究를 繼續하는데 本令의 改正을 기다리어 相當히 革新的인 것이 行해지리라고 보인다

五月中의 ◇滿粟入荷◇

五月中 安東經由朝鮮內入荷의 滿洲粟은 合計 五百九十四車 一萬七千九百噸으로 前年同月의 一千百四十四車 三萬四千三百二十噸에 比해 五百五十車 一萬六千五百噸의 減少다

朝取決算好成績

五月末日로써 決算을 締切한 朝鮮取引所의 業績은

證券部	
株式短期取引高	二二五、七六〇株
株式長期取引高	四六〇株
株式實物取引高	八〇株
計	一二二六、八〇〇株
手數料收入	八〇、八六四圓四〇
前年比	三九、三六三圓四三增
仁川米豆部	
取引高	六八三〇、〇〇〇石
手數料收入	一〇九、五一〇圓
前年比	三三、〇一〇圓減少

橫濱生絲市場 開港紀念休會

橫濱港開港紀念日로 生絲市場은 休日前後場이 모다 例休다

春繭取引狀況

【靜岡卄一日發電通】

▲濱松 出廻 六百八十二貫百二十匁 高價 六圓六十一錢 低價 四圓十錢 買馴 五圓八十八錢三厘 掛 四十六掛

▲沼津 出廻 九百八十二貫七百匁 黃繭 四百二十一貫百六十匁 高價 六圓六十八錢 低價 四圓八十八錢 買馴 六圓三十錢八厘 掛 四十七掛 白繭 五百六十一貫五百匁

▲三島 本日初取開始 高價 六圓十五錢 低價 四圓六十錢 買馴 五圓六十六錢三厘 掛 四十五掛 黃繭 十三貫五百二十匁 白繭 百九十九貫九百八十匁 掛 四十六掛 白高價 六圓五十八錢 低價 五圓二十一錢 買馴 六圓十錢六厘 黃高價 六圓十八錢 低價 五圓 買馴 五圓十八錢七厘

株式 新高價續出

商況 (二日)

前場 昨日下押으로 止場되엿든바 今朝日米爲替前日同事인 二十四弗五十六仙임에 反하야 스텔株는 五十二弗로 反撥되엿슴과 其他 換物人氣好轉으로 朝新은 昨後引에 比하야 十錢高인 三十五圓七十錢 大新은 五十錢高인 百九十九圓二十錢 東新은 九十錢高인 百九十九圓二十錢 그리고 鐘新은 十三圓丁으로 初寄한 後 換物人氣의 擡頭로 東新은 다시 二百圓臺를 突破하야 大新東新의 三圓丁의 高引을 接하고 當地도 突然 三十錢高引되고 其他諸株도 全部 奮騰으로 止場되엿다

後場 前場에 上放止場되엿던 바 後場에 入하야 依然保勢로 東新六圓四十錢 大新二十一圓丁等으로 寄付한 後 다시 上放되야 四圓三十錢의 新高價로 大引止場되다

東新二百三圓臺 新高價出現

日中停戰調印 米國의 本格化及 日米會商의 順調完了等의 好材料를 背景으로 二百二圓의 新高價를 내엿던 東新은 그 사이 配當落이 되엿고 또 東株의 今番增配에 對하야 商工省은 此를 不許라고 警告하엿슴에 依하야 強保合이 되든 바 엇재 다시 停戰申込에까지 나오게 된 中國의 實情이 汪精衛 黃郛 何應欽等의 中國人 그들의 率直한 告白에 依하야 보다 더 仔細히 알게 된 것이 好感되여 今朝當地東新은 前日後引에 比하야 九十錢高인 百九十九圓二十錢으로 初寄한 後 環境好轉에 繼續乘勢하야 近來에 드문 新高價 二百三圓三十錢을 表示하고 前場大引에는 以後進展은 매우 注目되는 바이다

株界六感

× 二百圓大關門을 깨치엇다가 다시 을려치는 威勢를 보면 東新은 아니라 諸株도 上賛成。

× 昨年十二月 換物人氣로 買進할 때의 東京東新買賣高를 보면 四十一萬六千株이엇슨데 이번에는 五月末日現在 三十一萬四千株에 不過하다하니 反動下押이 깁기를 바랄 수도 업는 일。

× 그뿐아니라 昨年보다는 客觀의 人氣가 不振을 두드리니 건너가는 式임으로 無理한 買進 올 안는 데서 下押의 素因도 적어진다

× 어려케 보다하면 特別한 惡材가 생기기 前에는 當分間 高價相持로 보는 便이 穩當。

經濟會議暗影

各國情勢로보아

資本主義의 產物인 『데프렛슌』으로 資本主義的으로 打開하려는 資本主義諸國의 會合인 倫敦世界經濟會議는 이제 不過十日을 압두고 잇는데 이 會議에 對하야 現在恐慌에 呻吟하는 列强이 적지 안흔 期待를 갓고 잇슴은 勿論이다 그러나 元來 現在의 國家組織下에 잇서서는 各國이 모다 利己的 野心을 百%로 主張하게 됨으로 自己의 心算되 自己스사로 아는 列國自體의 會議가 順調로 進行되기 어려운 事情을 念慮하고 잇다 米國國務長官 헐氏는 倫敦會議에서 通貨及關稅問題만 討議하고 戰債問題는 除外할 것을 聲明하엿고 日英通商協議會는 日本側의 主張인 英政府의 所屬殖民地關稅不引上保障問題로 挫折狀態에 빠젓다 其他 四國協定도 佛國反對로 外交關係에 暗影을 投한 感이 不無한데 如何間 前途는 樂觀을 不許한다

期米 伸惱나 調强

前場 昨後場 阪地二十四圓六十錢止와 共히 二十一圓六十一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二十四圓九十三錢을 繼承하야 二十一圓六十錢인 七丁低로 寄付한 後 大阪細刻인 五十四, 五錢을 보고 人氣閑散하야 相持한 中으로 五十九錢五番同事이더니 大阪九節五十八錢을 보고 買氣刺戟되어 小口買方의 買物이 出現하야 五十九錢으로 다시 六十一錢跳返을 보히더니 大阪止價奔戾인 六十五圓을 보고 제와 ㊆의 買物로 六十七錢外지 急戾止場하다

後場 大阪은 八丁高인 二十四圓六十五錢에 後寄되고 當地는 겨우 三丁高의 二十一圓七十錢에 寄付한 後 小幅上下하다가 別段과 如히 大引止場되다

金太의 先限戰 態度一變하는

今春以來에 實彈賣를 繼續하든 金太는 本月에 入하면서 態度를 一變하야 當限一萬五千餘石과 中限二萬六千餘石의 大賣物을 擁抱하고서 先限만은 買占하기 始作한다 그 策動하는 根的方針을 確斷키 어려우나 市中商談에 依하면 當中限의 賣物은 實米를 整備하고 잇는 만큼 渡米하기 外지에 姿勢를 變치 안흘 것가흐나 先限은 가진 天災의 危險性을 含有한 쌀이 아니라 減穀期에 直面된 限月이 만큼 買占는 것이 有利할 것가다고 한다 그리고 同店의 買賛成을 하는 反面에 新東은 賣會當日부터 賣賛成을 하는 모양으로 表現의 所組가 上長下短을 示하고 被하야 金太의 當中賣先限買의 關係로 中先의 鞘가 어느 程度外지 擴大되지 안흘가 한다

高價의 買躊躇 低價賣警戒와

新市讓會後 一落一騰으로 小幅의 波紋을 일으키엇스나 特別한 强弱材가 업는 만큼 結局은 保勢範圍를 脫치 못하고 二十一圓五六十錢臺를 維持하얏는데 다 實로 比偶의 모든 情勢가 何如한가를 窺하면 日本市場의 古米賣行은 良好하나 上米의 賣行은 不良하고 實米賣의 賣物은 依然壓迫하야 買氣를 阻喪케 하나 政府米의 買上이 完了되지 못하엿슴으로 賣方도 讓入的行動을 加하

米豆餘話

◇ 金太는 當中의 大賣物을 擁抱하고서 先限만은 買賛成을 하고 잇다 中先의 鞘가 擴大될 것 例

◇ 그리고 有力側의 買物이 現出하는 反面에 鳥合의 賣物이 續出하니 中限과 先限은 正反對인 것

◇ 그러나 渡米의 남어지를 處分하기 爲하야 堂島市場이 依然實彈賣의 威壓을 加한다고 아즉도 本格的으로 上伸키 未離?

◇ 그리고 古米는 잘 팔리나 上米의 賣行은 不良하다고 此는 一硬一軟의 相殺條件으로 하고

◇ 政府의 買上은 아즉 完了되지 안엇스니 結局은 强材가 優勢한 모양이엇다。

◇ 그러나 高價에는 買方이 警戒를 加하고 低價에는 賣方이 또한 躊躇하니 可謂 進退維谷

◇ 지못하는 光景이다 何如間 今後의 分岐는 天災期에 入한 此際임으로 무엇보다도 一晴一雨의 天氣如何로서 最後勝負 決하게 될 모양인데 植付期에 臨迫한 今日의 天候는 아즉 順調로 볼 수 잇스나 時代에 入하기 外지 好順을 繼續할지가 問題이다 果然 蒙古方面으로 沿海州를 거쳐 東으로 移來하는 新低氣壓이 朝鮮의 好雨를 에 一雨가 잇다면 四日以內 買氣又一層旺盛할 것이다

各地正米

▲京城 ‖(小戾) 期米强硬에 加하야 當用買取順調에 五錢假量上伸 ㊤三等二十一圓 二十圓三十五錢

▲仁川保合 環境은 强硬이나 日本이나 地場이 다 買氣薄으로 閑散無活氣保合 市勢 ㊤二十圓五十五錢 四等二十圓二十五錢

▲釜山下放 產地는 意外强硬하야 廉價賣物은 업스나 一般의 買氣는 極度로 萎縮되야 氣配二十錢假量下放을 演出 ㊂三等二十圓四十錢 四等二十圓二十錢 豫想이다

▲大邱不變 買氣依然不振이며 期米의 小戾에 殆히 無商內狀態이며 氣配不變 ㊂三等二十圓丁 四等十九圓六十錢唱 大豆況‖產地는 强硬을 傳하야 採算不成에 兼하야 實需側의 買進에 市況十錢各引締 市勢는 三等十四圓八十錢 四等十四圓六十錢唱

▲木浦奔騰 出廻四輛 產地는 賣物少하고 廉物이 無하나 期米低에 人氣頹狀態인데 市勢는 二十錢各奔騰 ㊂三等二十一圓三十錢 四等二十一圓丁

▲群山强含 出廻十四輛 日本實需不振이나 一般的으로 廉價賣出엔 强硬한 空氣로 賣物出盡 ㊂三等二十圓五十錢 四等二十圓四十五錢으로 五錢各强含

▲鎭南浦不變 期米의 小康에 產地가 廉價賣出을 꺼리워 함으로 市勢不變으로 ㊁三等二十一圓四十錢 四等二十一圓十錢

堂島前場情報

【商通大阪發電報】 朝鮮側正米側及地場의 賣出에 對하야 北鮮商業側은 乘換하고 地場岡山側中谷場演側等이 買入하엿다

京城商議主催 商業振興座談會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現下小賣商業者가 極度로 疲弊困憊한 窮狀에 잇슴을 보아 거기에 對한 對策을 講究코자 來八日午後二時부터 京城商議에서 商業者를 모고 商業振興座談會를 開催할 터이다

◇今日의 市勢 (二日)

株式	朝新 三五、七〇 (朝取後場引値) 東新 二〇三、三〇 (先限後場止値)
期米	仁川 二一·七〇 大阪 二四·六五 (先限後場止値)
正租	(仁川一斤值) [illegible]
正米	(仁川 ㊂三等) 二一、五〇
綿絲	(大阪後寄) 二〇四、七〇
生絲	(橫濱先限後寄) [illegible]
人絹	(大阪先限後寄) 一一〇、九〇
고무	(E A Q 一封度値) 現物二二錢 先物二二錢五
爲替	(對米) 二四弗五〇仙
地金	(朝銀買値一匁) 八、七〇

朝取短期 (二日)

[illegible]

大阪短期 · 東京短期 · 東京現株 · 大阪長期

[illegible]

朝取期米 (二日)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	三·五五	三·三〇	三·六〇
後場	三·九九	三·三三	三·六七

[illegible]

大阪期米 · 東京期米 · 各地期米

[illegible]

朝取各限併合 · 京城正米 · 仁川正米 · 仁川大豆

撫順大豆	[illegible]
長湍大豆	[illegible]
金开大豆	[illegible]
海州大豆	[illegible]
安東大豆	[illegible]

大阪市中定期 · 大阪綿絲 · 大阪棉花 · 橫濱生絲 · 大阪人絹 · 大阪砂糖 · 京城綿絲布時勢

[illegible]

鮮油冲値 · 鮮搾粕冲値 · 滿洲商況 · 鐵平業 · 海外砂糖 · 朝銀金買入價 · 對外爲替 ·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 日本金利 · 京城手形交換 · 海外經濟

[illegible]